

임오년 각 종단 종정 새해 법어

허망한 탐욕 버리고 청정한 본래 마음 되찾자

서로 공경하고 용서하자



해암 스님
조계종 종정

새해 아침 밝은 해가 쉽게 솟아 오르니 시방세계에 환희와 희망이 가득하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한 물건이 우주법계를 밝게 비추고 있으니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무궁한 광명세계로다. 일체가 원융하고 일체가 화합하여 호호탕탕 무애자재하니 시비와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와 축복이 넘쳐흐르도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난한 이, 외로운 이 모두가 본래로 부처님이니 서로 공경하고 서로 아끼며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할지이다. 대립과 투쟁에 해내는 어리석은 이들이여! 허망한 탐욕, 허공 밖에 버리고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영원히 광명세계에 살지이다. 三世古今誰是親(삼세고금수치친)가 湛然一物本來眞(담연일물본래진)이라 開花落葉根唯一(개화낙엽근유일)이요 日月去來絕往還(일월거래절왕환)이로다 삼세 고금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청정한 한 물건이 본래 나 일세 꽃 피고 잎 지니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 뜨고 저도 가고 음이 없도다. 아 -- 악!

내고집 버리고 남 위하길



덕암 스님
태고종 종정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는데/ 삼복이 부른 고통의 바다 끝이 없네
지금 나라 안팎이 심히 혼란스럽다/ 대중은 현실을 직시하라/ 모두가 함께 발심하여정도(正道)를 찾을 때가 되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과 분쟁은 나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만을 앞세우는 데서 시비와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긴장과 불안감을 가져다준 일련의 세계적인 사태와 국내의 사건들을 보더라도 모두가 한결 같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와 아집에서 온 병폐가 아니면 편견과 독선이 낳은 불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생각하고 위하는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안락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동체대비의 자비심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모두가 고통없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니다.



서옹 스님 신년 회교

고 불 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사진)이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세계 평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신년회교 "慈悲無窮(자비무궁, 자비심은 끝이 없다)"을 본사에 보내왔다.



시비·분별없는 곳에 화합



도옹 스님
천태종 종정

莫道始終分兩頭(막도시종분양두)
坐斷千差古路頭(좌단천차고로두)
萬古碧天空界月(만고벽천공계월)
石馬猶自笑呵呵(석마유자소가가)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앞아서 온갖 차별을 옛길 위에 끊으니

만고의 푸른 하늘 허공의 달을 돌말이 오히려 꺾일 수는 다네
예기치 못한 검은 말이 선두를 달리듯이, 어려움 속에 한 조각 광명이 비치는구나. 화합이 있는 곳에 불·보살님의 기쁨이 드리워질지니, 이는 가정마다 계시는 관세음보살을 보는 이의 것이니라. 언제나 지난 것보다 지금 스치는 것을 놓치지 말며, 나를 돌려 너를 향할 때 진정 새해는 다가오리라.

심인 밝혀 자주성 세우라



혜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중생들은 각자의 맑은 바에서 심인(心印)을 밝혀 자주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에 잡힌 바 되어 심인, 자주를 상실하고 물질문명에 대한 욕구는 끝간데 없이 상승하고 반목과 질시, 투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한 곳은 전쟁에 휩싸여 있고, 안전(眼前)의 쾌락과 풍요에 눈이 어두워 환경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새날에 모든 중생은 참회로써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심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각자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마음으로 본연의 행과 말을 합시다.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지역, 국가, 종교가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성찰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주의주장에 매여서 타인이 속해 있는 단체, 지역, 국가, 종교를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이 심인 본래의 자리에서 결코 둘이 아님을 깨쳐야 할 것입니다.

종교 편견·인종 갈등 극복



보문종 혜안 종정

함께 살아가는 것은 지장각세간(衛正覺世間, 중생세간(衆生世間), 기세간(器世間)의 삼중세간이 한데 어울림으로써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의 동 식물 그리고 삼라만상이 상호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법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인류의 화해, 인류와 자연의 화해를 전제로 종교적 편견과 인종적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 해에는 정진의 삶, 이웃을 배려하는 자비와 지혜의 삶을 가꾸어주도록 발원합니다.

부귀와 명예보다 보살행



총지종 룡정 종령

갑수목 사회현상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지혜를 갖고 닦지 못하고 물질 위주의 행복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의 힘이 더욱 절실하지만 세속 의도들의 작태를 보면 오히려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제할 마지막 보루는 불교 밖에 없다는 자각을 철저히 하고 항상 정도를 받들어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합니다.

이기심 버리고 공존 공영



법륜종 정각 종정

희망과 열기에 찬 임오년 새 해에는 지역주의적인 이기주의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온 인류 모두가 대이적인 공존공영의 큰 안목으로 동체대비 육화의 대화합 정신으로 새 세상을 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온누리 불자여러분, 민둥이 떠오르는 새 아침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공간적인 국토 위에 평화와 번영, 행복과 자유를 가득 채우시라.

원융화합해 어려움 극복



원융종 일공 종정

어려운 때일수록 불자들은 참다운 인간상과 이상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원융화합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서로서로 자비심을 베풀어 원융화합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밝은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고귀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으로써 청정하고 화합된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족같이 보는 자비심



총화종 동광 종정

청정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볼 것이며 넓은 지혜로써 볼 것이며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족과 같이 볼 것이며 항상 원하고 항상 우려될 것이라. 광명과 희망찬 임오년을 맞이하여 용맹진진 말과 같이 뛰고 또 뛰어 못다한 일들을 이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기운이 물려온다



일반종 해국 종정

인생이 무상하고 제행이 무상하며 봄이 오고 꽃이 피며 낙엽이 지는 자연의 변리(變理)도 돌고 돌아감이 아니요 섹즉시공 공즉시색이니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건만, 그러나 임오년이 온다. 오대양 육대주 지구촌의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화합의 기운이 밀려온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임오년의 해가 뜬다.

남의 고통 덜고 기쁨 주자



선각종 영담 종정

이제 세계는 하나인 지구촌에 살면서 내 이익에 앞서 이타심으로 생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발고여력의 자비심을 국민 모두가 지니고 행할 때 모든 암흑은 사라지고 광명세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전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불자들이 앞장서서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다함께 동참, 일로매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게을러 실패 노력해 성공



심문종 석파 종정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듯이 만나면 헤어지고 쌓아놓으면 흩어지고 게으르면 실패하고 노력하면 성공하고 태어나면 죽어가고 수행하면 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원하는 대비정신이라면 화해와 화합이 이룩될 것입니다. 한생각이 비고 고요하면 만물이 평등해집니다. 만물이 평등해지면 무엇이 승하고 무엇이 열하며 무엇이 무겁고 가볍다 하겠습니까.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국내지원 ●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Chogye sect of korea HAN-MA-UM-SEON-CENTER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62
전화 : 사무처(031)470-3100 팩스(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064-721-4662 FAX: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3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충북평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2-6693~0 FAX: 055-345-9900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6-8163, 744-1321 FAX: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동 344-21 TEL: 042-532-1481 FAX: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99 TEL: 054-275-3163 FAX: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054-555-8871 FAX: 054-556-1989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460-2019 / FAX: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703-560-5166 / FAX: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outh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6 TEL: 323-766-1316 / FAX: 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 Skokie IL. 60077 TEL: 847-674-0811 / FAX: 847-674-2280
-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416-750-7943 / FAX: 416-701-1359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1406) Rep. Argentina TEL: 5411-4921-9286 / FAX: 5411-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Prv.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l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0)2131-969551 / FAX: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662-711-2005 / FAX: 662-391-4378